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2.02.14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시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시공간 계획 과정 小考

03 종합

사랑에서 _ 소주병
건축계 단신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절차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 발간

전라남도, 청년 주거비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목포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추진

06-07

전북 지역 뉴스

전라북도, 건설현장 649개소 긴급 안전점검 진행

전주시,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품목 확대

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의 지원

08-09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회원사에 건축공사 및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관리 안전 요청

광주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자료 게재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10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일반 분야(주거) 은상/동상 수상작



11

종합뉴스

대한건축사협회, 더불어민주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추진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

대한건축사협회, 2차 8국 5실 19팀으로 조직개편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어린 왕자(Le Petit Prince)

한 장의 사진 _ '본태미술관 중정'

세상사는 느낌 _ 코로나로 인한 공연예술의 변화

한 편의 시 _ 겨울 강가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시공간 계획 과정 小考



신재욱 논설위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newurban@hanmail.net

[경력]

- 광주광역시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주광역시 복구청
-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 건축사
- 도시계획기술사

[참여 도시계획 프로젝트]

-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광주 지구단위계획 기준 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 경관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등

[저서]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동산 및 도시계획(2021)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서 (2008)
-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 등

2021년 7월 감사원이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 함께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2117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95년 후 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 경기도 인구 1,390만 명을 겨우 넘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인구소멸은 당장 지방소멸과 직결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블록체인, 전염병,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가 1~3차 산업혁명 때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도와 자동차가 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었다면, 디지털 전환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통과 산업' 부문이 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이 바꾸는 도시공간에서 '산업이 바꾸는 도시공간'으로의 전환하는 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이전의 변화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환 시대의 도시공간 계획 과정을 소고(小考) 형태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위해 대규모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지방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들이 머물도록 하는 '도시공간 계획 혁신'을 하자는 요청을 들곤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4차 산업 종사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원할 때 일하는 유연한 노동형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워크에 익숙하고, 그들의 사업체는 기존과 달리 독특하다고 합니다. 스마트산업 활성화에 따라 기업이 소규모화되면서 입지가 자유롭게 되고 시·공간적 제약도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대도시권의 도심에 인재·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판교 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을 '삶-일-여가(live-work-play)'라는 공간 언어로 변환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주거공간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 '삶의 중심'으로서 다변화되는 라이프스타일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업무 및 여가 수요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대학 캠퍼스 내에 기업의 첨단 생산시설 설립을 허용한다는 법안의 입안을 보면서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만 허용됐던 산학융합지구 대상 지역을 대학 캠퍼스로 확대해 도시형 공장을 캠퍼스 내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가는 모양이었다면, 이제는 대학 캠퍼스가 산업단지의 경쟁력 있는 요소를 직접 품에 끌어안는 구도입니다. 이를 통해 캠퍼스 안에 기업과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까지 가능하여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성장·인구감소·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광역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마련되었다면, 이번에는 지역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하여 상향식(bottom-up) 정책을 만들어 중앙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마련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정책입니다.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단일경제·생활권 조성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조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생활권에서 필요한 경제·문화·생활을 1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인재·자본·일자리 플랫폼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구나 기존 산업에 AI·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융합되면 공간을 뛰어넘는 미래의 지역계획이 구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산업들이 경계를 허물어 융합할 수 있도록 교통망, 자본, 사람, 정보의 길을 터주는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근린'은 향후 도시공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공간 단위가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에 의하면 거주지 500m 이내 결제 비중은 2018년 25.6%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하였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동네에서의 활동과 네트워크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그 예입니다. 동네기반의 중고거래에서 지역 소셜(local social)로 확장하여 소통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상업과 업무공간의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근린에는 쾌적성에 대한 요구 및 신기술이 마찰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도시계획 혁신이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 2020년 재선된 이달고 시장의 공약으로 자전거와 보도생활권인 15분 거리의 근린 생활권에서 생활 인프라 공급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15분 도시' 조성이 대두되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호주 멜버른에서도 이와 유사한 '20분 도시' 계획을 발표하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격자형 블록을 9개 단위로 묶어 이 내부도로를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바꾸어 생활에 필수적인 근린생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기본단위로 설정하는 '슈퍼블록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린단위의 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도시들의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근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를 맞춤형 시설로 배치 계획하고, 더 큰 수요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권역별 거점 복합 공공시설로 공급하는 공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도시공간 계획 수립 과정을 체계 없이 3가지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전환 시대에서 다양한 정책을 도시공간 언어로 변환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낯설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에서 _ 여든여섯 번째

소주병

북구 무등도서관 근처 우산근린공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인다. 특히 남성들이 많다. 할아버지들이다. 공원을 산책하는 분, 벤치에 앉아 계신 분, 이런저런 오락을 즐기시는 분, 오락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분 등등. 다양한 행태를 보여 준다. 왜 이곳이 이런 장소가 되었을까?

공원 인근에는 말바우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다. 이곳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공원은 별도 잘 들고 머물 환경도 양호하다. 공원 전면도로는 늘 차량 이동으로 붐비고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한다. 지루하지 않다. 먹을 것, 쓸 것, 볼 것이 많은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될 것 같다.

이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느 아버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린이들의 할아버지다. 대부분은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내어놓고 노년을 즐기는(?) 분들 일 수도 있다. 그때는 그랬다. 자식들에게 모두 주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공광규(1960~) 시인은 <소주병>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술병’은 청장년의 아버지를, ‘잔’은 자식을, ‘빈 병’은 경제력이 떨어진 나이 든 아버지들을 떠오르게 한다. 예전 아버지, 현재 할아버지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중장년을 잘 키워낸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을 사는 아버지들은 속을 다 비우고 버려지는 그런 소주병은 안 되어야겠다. 오랫동안 병 속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혹시 비워졌다면 다른 내용물로 빨리 다시 채워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신세는 모면해야겠다.

다행히 소주병은 재사용이 가장 많은 병이다. 참기름을 직접 짜는 시장 방앗간에서 참기름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구수한 냄새로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며, 감초 역할을 하는 참기름으로 채워진 소주병. 우리 아버지들은 단순히 빈 병으로 끝나지 않고 참기름병으로 재사용되는 빈 병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체력(體力), 지력(知力), 금력(金力)을 어느 정도 갖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육체 활동을 하는 데 남 도움을 받지 않고, 그간 축적된 지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일정 역할을 하며, 후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길거리나 쓰레기장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이 아닌, 주방의 중요 자리에서 사랑받는 참기름병처럼.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계 단신

한국건축규정마련

국토교통부는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2021.1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2021.12.26. 제정] 한국건축규정안을 공고하였다.

이 규정내용은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 「건축법」 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 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관련규정을 종합안내하기 위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별표 1] 한국건축규정

- I. 건축허가 시 확인법령(132개) {입지관련법령(64개)+건축물관련법령(68개)}
- II. 의제처리법령(29개)
- III.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234개) {심의관련법령(16개)+인증및평가관련법령(21개)+입지관련 특례법령(28개)+건축물관련특례법령(19개)+개별용도 시설기준(26개 시설, 145개)+기타법령(5개)}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2월부터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토교통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474호, 2021.12.31. 제정]에 의해 「건축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파산관재인
- 광주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탁 131-009-47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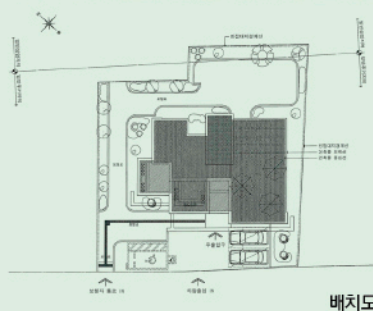
완도 청년센터

이경일 건축사 / (유)원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하당로 175 / Tel. 061-284-336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35번지 / 대지면적 : 667㎡ / 건축면적 : 221.25㎡ / 연면적 : 499.13㎡ / 건폐율 : 33.17%
용적률 : 74.83%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완도 청년센터는 1면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직사각형을 길게 되어 있는 부지로 청년 인구 유출, 청년들의 거점 소통 공간 부재, 청년 교육 및 창작 공간 부재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청년 간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북카페 형태의 세미나실, 커뮤니티룸, 프로그램 및 소회의실, 대회의실 등을 계획, 청년들의 소통과 교육·창작공간, 쉼터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midas CAD

매주 수요일
유용하고 흥미로운 카드자료 및 정보를
마이다스카드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건축칼럼

카드팁

건축법

건축스팟

구독신청방법

1. 핸드폰 카메라를 우측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구독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구독 신청페이지 클릭 후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구독완료!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절차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 발간 기획설계공사유지관리 등 체계화해... 전남건축사회 등에 배부



전라남도는 지난 1월 17일 공공건축의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절차 가이드북'을 도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적용 법령과 지침 등이 많아 일선 담당자가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고, 관계 부서 및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제 공공건축사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은 건축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에서부터 운영설계공사유지관리까지 4단계, 54개 업무별로 체계화해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업무별로 민간전문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절차별로 흐름과 주요 사항 등을 도표화해 시각적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가이드북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지원센터,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등 5건의 공공건축물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를 비롯하여 22개 시군과 전라남도소방본부, 민간전문가 등에도 배포하여 전라남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 가이드북은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과 도민이 쉽게 보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청년 주거비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 일하는 청년 무주택자 500명 전월세



전라남도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주거비를 매달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에 소재한 회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다만 유사 주거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에게 전·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추진

지원대상, 관내 20세대 이상 211개 공동주택 단지



목포시가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목포는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211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신규 사업인

오수관 준설지원 사업을 포함해 보안등 전기료 지원,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전자투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사업별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

고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청서류를 구비해 목포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목포시, 2022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실시

1동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연중 상시 신청 접수



목포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 사고 방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빈집 40개동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붕괴 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약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KAAB 건축학인증 '최고 등급' 획득

건축전문학위 프로그램 갖추었음을 정식 인정... 졸업생 건축사시험 응시 가능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가 교육부 평가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학인증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학과장 김준택)는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여수캠퍼스 청경마루에서 열린 KAAB 건축학교육인증

실사단 방문평가 결과 KAAB 인증평가 건축학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이는 캔버라 협약 회원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 정식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문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전문 업무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국내 대학의 건축학교육 학과는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학부 학위과정이나 학석사 연계/통합 학위과정,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건축학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장원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디자인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29, 2층
- **전출**
 - 최상현 건축사 / (주)한터 건축사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25
 - 김정식 건축사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2, 201호
- **퇴회**
 - 박금식 건축사 / 동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자보 1길 3
- **변경(소재지)**
 -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2, 3층
 - 오병돈 건축사 / 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양율로 192, 2층

꿈꿀 수 있는 家

박정길 건축사
(유)건축사사무소 태백
전북 군산시 칠성6길 34
Tel. 063-471-1980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30-4번지 / 대지면적 : 252.80㎡ / 건축면적 : 97.92㎡ / 연면적 : 178.68㎡ / 규모 : 지상 3층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플러스, 화강석, 청크판



전라북도, 건설현장 649개소 긴급 안전점검 진행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완료... 보수보강 시설에 대해 2월 중 표본점검

전라북도는 최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건설 현장 649개소를 긴급 점검했다.

점검대상 649개소는 기 점검한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으로, 점검기간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1월 21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사회재난과, 공항하천과, 수산정책과 등 9개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안전점검 실시요령 및 방법,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도와 시군에서 건설현장 점검 시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점검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전라북도는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했다.

또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사현장 649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품목 확대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강화

전주시가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수리해 주는 해피하우스 지원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점검·보수 및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는 주택 점검·보수 지원 품목을 기존 32개에서 △전기안전기 △세탁기호스 △도어체크 수리 등 3개 품목을 추가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대규모 수선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시 소규모 시설물·부속품의 점검·수리를 함께 지원하고, 집수리 봉사단체 및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와 해피하우스 센터를 연계해 더 많은 세대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관리주체가 없어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 총 700세대 지원을 목표로 수혜가구를 집중할 예정이다.

해피하우스 주택 점검·보수 지원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의 가구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전주시 35개동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인후센터(1577-2589), 노송센터(1577-6513), 완산센터(1577-



K세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앱 하나로
모든 감리서류!!



5인 동시사용



비상주
상주
해체
석면까지



PDF
도면 업로드
마크업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8m 도로에 접해있고 도로 맞은편에 소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정방향 형태의 대지이다.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고 현무암이 깔린 마당을 지나 건물 중앙부의 중정 속 수목을 조망하며 현관에 들어서게 된다.

현관 전면에 아쿠아 유리 칸막이를 구성하여 주방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였고, 현관 우측에 주방 및 유틸리티 공간을 구성하고, 동측 중앙부 창을 커튼월 타입으로 구성하여 채광을 유입하도록 구성하였다.

건물 좌측에 거실을 구성하여 동측 및 남측의 일조와 채광을 극대화하였고, 거실에서 외부 데크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여 차 한 잔의 여유와 도로 반대편 소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측 중앙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진입하면 동측의 커튼 월창으로 중정의 수목을 조망할 수 있는 홀을 구성하였고, 우측에 안방과 서재를 구성하였으며, 좌측에 두 자녀의 방을 구성하여 자녀와의 프라이버시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다.

서측 중앙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진입하고 세 자녀의 막내방을 배치하였다.

천장을 구성하여 침대에 누워서 별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6514), 팔복센터(211-7740) 중 가까운 센터로 소득 및 자격증빙 서류를 지참 후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집수리지원 사업과 더불어 △마을개선 희망사업 △시민들이 간단한 보수는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집수리교육 △무료 공구대여 사업 △공공건축가의 무료 건축 상담 등 다른 해피하우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노송·완산·인후·팔복센터 등 4개 권역센터를 통해 총 3,664세대, 1만 4,903건의 주택 내 시설물·부속품의 점검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의 지원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 원 지원



남원시가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 지원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신규시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주택가 주변 주차장 조성비 지원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민 대상 '내 집 주차장 그린파크 사업' 진행

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희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크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희 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크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075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이돈형 건축사 / 아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1, 2층
- 김정배 건축사 / 제이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46, 1층

•전입

- 김윤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 홍영표 건축사 / 라성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군청길 30
- 김기범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변경(소재지)

- 채가을 건축사 / 가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1201호
- 이한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80, 301호
- 유희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dn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99-1, 4층
- 나민경 건축사 / 유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99-1, 4층
- 이용수 건축사 / 태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524, 103호

•결혼

- 김형노 건축사 / 선형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01월 16일(일)

•부고

- 심재준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16일(일)
- 김용주 건축사 / 성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1월 19일(수)
- 하정규 건축사 / 유천 건축사사무소 / 본인 별세 - 01월 29일(토)
- 문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 모친상 - 01월 31일(월)
- 이명엽 건축사 / 이루다건축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2월 06일(일)

품:당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57, 4층 / Tel. 062-415-721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47-3 / 건축면적 : 137.01㎡ / 연면적 : 315.49㎡ / 건폐율 : 59.62% / 용적률 : 137.29% / 규모 : 지상 3층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0.5B 콘크리트벽돌 치장쌓기, Thk0.7 티타늄 아연판 돌출이음

광주건축사회, 회원사에 건축공사 및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관리 안전 요청
최근 발생한 건축 공사 중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사항 준수 당부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지난 1월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사에 안전관리 사항 준수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일제 실시한 가운데 회원 전체 공지를 통해 해체계획서 이행 철저와 건축물 해체공사 시 보행자,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사전 안전확인,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확인철저,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발판 및 안전난간 적정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철

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인채 회장은 지난 2월 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여, 광주건축사들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하며,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회원들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자료 게재
지난 2월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검토 사례집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2월 3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자료 게재를 회원사에 공지했다. 관련 자료는 데이콤 웹하드(<http://www.webhard.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번 입력 후 내리기 전용, 각종 강연회 및 관련자료, '2022.02.03.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관련 자료'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회원사의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돕고자 자료를 게재했다”고 밝히며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예비후보자 2인 등록... 본 등록 기간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구분	감사 선거 예비후보자	
사진		
성명 (사무소명)	유형두 건축사사무소 가원	주정호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TYPE0, TYPE1, TYPE2, TYPE3, TYPE4

응력 크기, 진동 크기에 따른 CASE별 시공순서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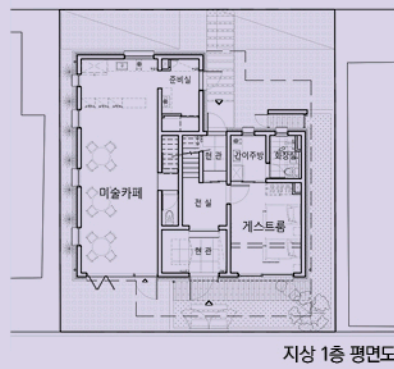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 햇살이 따듯한 어느 봄날, 두 딸을 키우는 부부를 만났다. 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부부는 딸들의 성향에 맞게 각각의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가족이 함께 소통하기를 원했고, 딸들을 품 안에 가득 안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아늑하고 따듯한 집을 원했다. 성장기에 있는 두 딸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라 집 또한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했다. 거실은 소통의 공간으로 2개 층 오픈을 통해 서로의 시선과 이야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방은 분리과 확장이 가능한 창호로 계획하여 필요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방은 개별 화장실과 발코니를 통해 프라이빗하게 구성하였으며 전실을 두어 추후 공간의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거실의 큰 창을 통해 바라보는 바깥 시선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색이 다른 두 매스의 결합으로 두 딸이 서로 꺼안은 모습을 형상화하여 서로를 품은 ‘품:당’으로 자리하였다. ”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다락 평면도



지붕 평면도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정철)는 지난 1월 2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 회원 공문을 통해 2022년 광주건축사회 감사선거 예비후보자를 공고했다.

이번 감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접수 순서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가원 유형두 건축사와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정정호 건축사 2인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감사후보자 본 등록 기간이 이어지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별개로 감사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감사선출은 오는 3월 23일 진행되는 광주건축사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나서

지난 2월 초부터 매주 월·수(오후 2~4시)에... 건축사가 직접 상담 진행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문제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지난 2월 4일 밝혔다.

건축민원상담실은 최근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 민원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통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전문적인 건축 상담을 받으려면 건축사사무소에 개별 방문해왔으나,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만 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해졌다.

매주 월·수(오후 2~4시) 운영되는 건축민원상담실에서는 ▲토지 매입 전 건축 가능 여부 검토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건축 관련 각종 법령 ▲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해소방안 및 건축공사 주요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3월 8일까지 모집

버려지는 빗물 재이용... 설치비 90% 최대 1천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물 순환 선도시 조성 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저금통'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빗물저금통을 이용하면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하수도로 흘러갈 빗물의 부하를 덜어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미만(신축 제외) 학교이며, 설치비의 90%,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020년 26곳에 빗물저금통 설치비 1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어린이집,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 21곳에 8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시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3~4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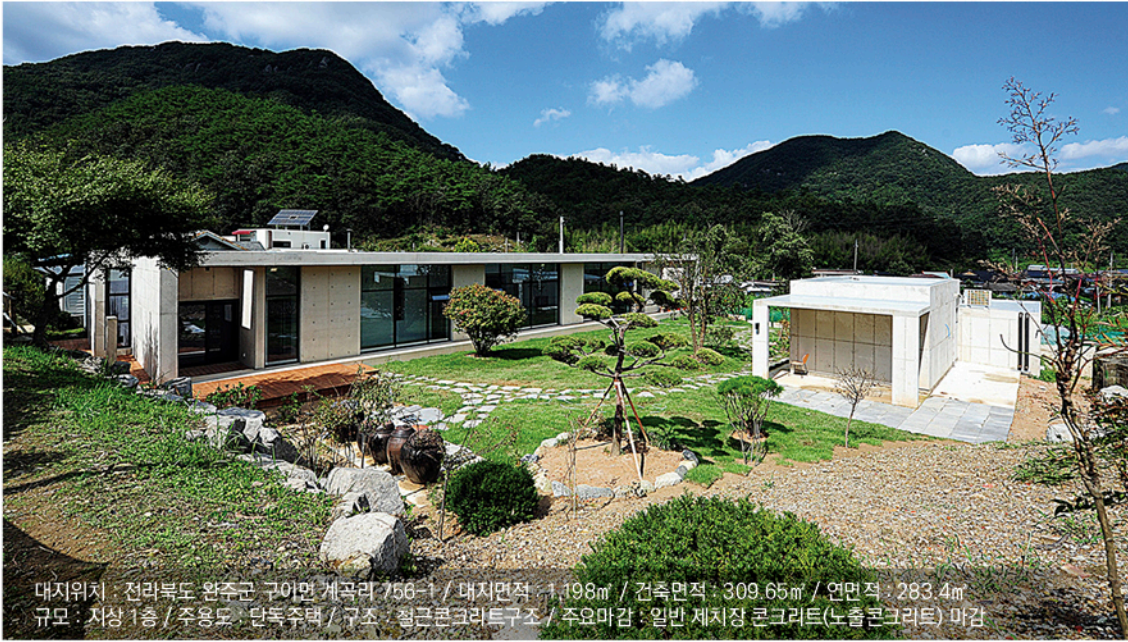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TEL. 062-613-1620)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박영근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도시 /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17번길 2, 503호
- 전입
 - 김정식 건축사 / (주)유탑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01호
- 전출
 - 홍영표 건축사 / 전북 전출
- 변경(사무소명)
 - 서울림 건축사 / (주)알엔피 건축사사무소
 - 양관식 건축사 / (주)엔에스 건축사사무소
 - 조두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러스
- 변경(사무소명&소재지)
 - 양기승 건축사 / (주)청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금로 40, 4층
 - 김수현 건축사 / (주)아기공작소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월산로165번길 20-22
- 변경(소재지)
 - 김형준 건축사 / 모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B동 2010호
 - 김기일 건축사 / 다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FA-603-A호
 - 이종순 건축사 / 이안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금로 40
- 부고
 - 김재도 건축사 / (주)이공디벨로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27일(목)
 - 김춘광 건축사 / (주)디자인현대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2월 03일(수)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세부 개요는 2021년 11월호에 게재됨



대지위치 : 전라북도 원주군 구아면 계곡리 756-1 / 대지면적 : 1,198㎡ / 건축면적 : 309.65㎡ / 연면적 : 283.4㎡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일반 제지장 콘크리트(노출콘크리트) 마감



은상(사용승인 일반 분야(주거)) ‘계곡리 주택 2021’

설계자 : 김문호 건축사 / 이룩 건축사사무소

천년을 이어온 정약의 대표곡 중 평호회상은 ‘낮은 조로 연주하는 영산회상’을 의미한다.

기본 음역을 4도 낮게 이조(移調, 다른 조로 바꿈) 하여 원곡에 비해 낮은 음역에서 평화로운 느낌을 강조하여 웅장한 느낌을 전한다.

건축계획은 외곽들이 강조된 전면 30m 길이의 파사드(Façade)를 적절히 분절하여 중후하면서도 평안한 시각 구성을 의도하였으며, 평면 곳곳의 중정 등을 통해 계곡리의 온전한 자연을 주택 내부로 이끌어 준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503-11번지 / 대지면적 : 484㎡ / 건축면적 : 90.46㎡ / 연면적 : 136.85㎡
 규모 : 지상 1층,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중목구조 / 주요 마감 : 목재, 조적, 로이복종유리, 알루미늄복합패널

동상(사용승인 일반 분야(주거)) ‘한옥 담은 집’

설계자 : 김현철 건축사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건축주는 자신이 소유한 정자와 같은 전통한옥을 이건설켜 현대식 양옥과 어우러진 주택을 짓고자 했다. 전통한옥은 12평 규모로 좌측면으로 돌출된 대청마루를 가진다. 대지의 안쪽에 한옥을 위치시키고, 도로변에 정사각형 모양의 양옥을 계획했다. 한옥과 양옥을 잇는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배치를 구성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더불어민주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추진협약 체결
 지난 1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김철민 국회의원 등 참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약식에서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 사회·경제·

환경·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굴과 실현 ▲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혁신 ▲ 건축서비스산업과 일자리 확대 ▲ 건축설계 및 감리 기준의 혁신형 정책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추진협약으로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 김수경 이사, 박성준 미래전략단장, 정창호 의무가입실행위원장, 임정택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건축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특임본부장, 박상혁 직능본부 상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회원 40여 명이 자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

오는 8월 4일 시행... 미가입 회원 1년 이내 건축사협회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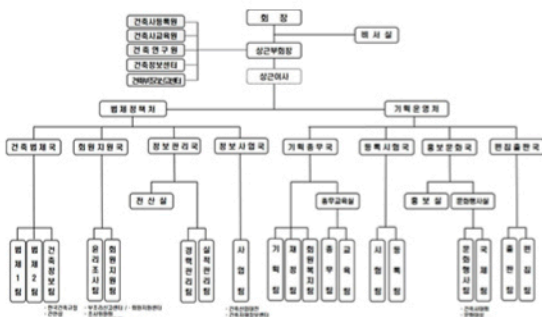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됐다.

오는 8월 4일 시행으로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 227141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2차 8국 5실 19팀으로 조직개편

윤리자정 기능 강화와 민원서비스 대응력 향상 취지로 법제정책처의 업무기능 확대



의무가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본협회 사무기구를 2차 8국 5실 19팀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편된 사무조직은 2월부터 본격 운용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협회의 행정역할과 수행기능을 재정립하고, 미래 경쟁역량 강화, 기능효율화를 위해 조직구조를 재편성했다.

사무국 조직은 기존 1차 4국 4실 13팀에서 2차 8국 5실 19팀으로 개편했다. 단일체제로 편성된 사무처를 업무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획운영처와 법제정책처로 분할한 것이자, 회원을 위한 건축 법제도 개선과 민원서비스 대응력 향상을 위해 '법제정책처'의 업무기능이 확대된 점이 핵심이다.

대회원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회원지원국'도 신설됐다. 회원지원국 산하에는 회원 윤리 관련 조사 업무를 전담할 '윤리조사팀'과 '회원지원팀'이 편제돼 회원 지원 업무를 위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기획총무국 산하에는 회원복지팀도 신설돼 연금제도와 같은 회원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꾀했다.

윤리조사팀의 경우 의무가입 이후 중요성이 높아지는 회원의 윤리 의식 함양과

선제적 자정을 통해 협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하게는 센터 구축 이후 회원 호응이 높은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각종 정보사업의 기능도 확대된다. 한국건축규정과 건안성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정보팀이 신설되고, 기존 건축자재정보센터와 한국건축산업대전 시행 업무는 정보사업국에서 관할한다.

기획운영처 산하에는 기획총무국, 등록시험국, 홍보문화국, 편집출판국이 편성됐다. 기획총무국에는 직원 인사, 복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과 정책개발에 집중할 기획팀,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재정팀이 소속된다.

등록시험국은 기존 시험팀과 등록팀으로 구성되고, 홍보문화국은 홍보, 문화행사, 국제팀으로 세분화된다. 월간 '건축사지'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제작을 담당했던 편집실은 편집출판국 소속으로 변경된다.

법제정책처는 산하 건축법제국, 회원지원국, 정보관리국, 정보사업국으로 구성된다. 법제1팀, 법제2팀, 건축정보팀이 건축법제국 소속으로, 윤리조사팀과 회원지원팀은 회원지원국, 전산실과 경력관리팀, 실적관리팀은 정보관리국으로, 사업팀은 정보사업국 소속으로 거듭난다.

(자료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2년 건축사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 3인 등록

오는 3월 3일 제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 감사 후보에 2인 출마...

건축사공제조합 향후 3년을 이끌 신임 이사장 선거에 3인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오는 3월 3일 진행되는 제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와 함께 감사 후보자에도 1인의 후보가 출마했다.

다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다. 자세한 이력 및 선거 방법은 건축사공제조합(<https://www.caf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이사장 후보			감사후보 (기호 1번 사퇴)
사진				
기호	1	2	3	2
성명 (사무소명/ 소재지)	조 동 욱 (아기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 인천)	조 태 종 (주)마당 종합 건축사사무소/ 서울)	신 우 식 (주)에가씨엠 건축사사무소/ 충남)	박 진 만 (주)테마 종합 건축사사무소/ 세종)

2022년도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22. 2. 24.)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감사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사 진	사무소 명 (소속)
김 남 중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건축사회)

2022. 1. 28.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책 소개 _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어린 왕자(Le Petit Prince)

생텍쥐페리 저 / 열린책들 / 2015. 10. 20.

누구나 한 번은 읽어 봤을 법한 책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 기억 속에 의미는 사라지고 책 이름만 남은 "어린왕자"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책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막에 떨어진 주인공이 어린왕자를 만나고부터 시작된다. 난데없이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하는 어린왕자에게 몇 차례 시도 끝에 귀찮은 듯 그려준 상자 그림을 통해 그들은 친구가 된다. 어린왕자는 여태 오면서 겪었던 일을 말한다.

어린왕자는 소혹성 B612란 별에서 왔으며, 그곳에서 장미를 한 송이 기르고 있었지만, 장미의 끝없는 투정과 뽀냄에 그만 도망치듯 떠나버린다.

그러고는 여러 별들을 여행하면서 왕과 지리학자, 사업가, 술꾼, 허영꾼을 만난다. 그러다 결국 지구에 온 어린왕자는 사막에서 여우를 만난다. 여우를 통해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어린왕자는 결국 떠난 자신의 별로 돌아간다.

이 책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책이다. 순수함과 동심의 세계를 떠난 어른들과 동심의 세계에 있는 어린이 모두 참 깊은 의미를 느끼는 책이다.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읽게 된 '어린왕자'는 나에게 순수함을 되찾아 주었고, 또 다른 의미를 찾게 하는 책이 되었다.



문학 평론가 황현산이 옮긴, 전세계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사는 느낌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코로나로 인한 공연예술의 변화

2019년 코로나가 생기면서 나의 많은 일상들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대학생활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는 것부터 음식점, 카페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것까지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절반만 볼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연예술 분야이다.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TV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한 음악가를 보게 되면서부터다. 코로나 이전에 공연을 보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그제서야 공연 분야가 코로나로 많은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투입되고 많은 기계장치와 노력이 함께 들어간다. 하지만 코로나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일 자리를 잃고, 공연을 보며 꿈을 키우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한 기사를 읽다가 민간 공연장과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대형규모 공연장에 비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문득 집 앞의 '임시휴관'이라는 팻말이 걸린 공연장이 생각났다. 사실 나도 "큰 공간과 작은 공간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꺼려질 것 같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연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언택트 공연 콘텐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구매를 해볼까 고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언택트 공연은 정말 임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강의를 익숙해져서 대면강의를 원치 않는 대학생들도 생겨나게 된 것처럼, 비대면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직접 공연장에 가기보다 언택트를 택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느낌을 언택트 공연이 온전히 살릴 수 없다.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끼는 진동과 전율은 화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공연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열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 장의 사진



이동희 교수 작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본태미술관 증정'

제주특별자치도 / 2019년 11월 30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겨울 강가

배가 고프면 갈마
사회적 거리 띄우기 불만일까
하얀 이불 속에서
쨍쨍 울어대는 겨울 강가
차가운 겨울속
눈 덮인 깊은 강 속에
고요한 숨소리만 들린다

새들의 발자국 소리에
선잠을 깨었을까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몸부림치는 듯
쨍쨍쨍 소리 내며
하얀 눈이 내린 얼음 위에
한 가닥 금이 간다

아마도 오랜 잠결 속에
봄기운의 소리를 듣고
하품을 하는 것이 아닐까



EPS 준불연 단열재

DK | 주디케이보드 ×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행명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 주대 광 판 벨
주디케이보드 | 고객센터 1855-2240